

# 관세전쟁 속 트럼프 수혜주는?... “조선·건설·엔터 등 주목”

타격 받은 LG전자·기아 숭고르기  
삼성전자, N 회장 판결에 하단 방어  
트럼프 ‘조선업종 필요’ 언급에  
동맹국으로 韓 예상... 관련주 반등  
서비스업인 엔터주 등도 영향 미미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조선업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시장 분석 중인 투자자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잠시 유예했지만 LG전자, 기아 등 제조업 관련주의 반등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내수 관련주와 ‘트럼프 수혜주’ 등이 주목되는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LG전자와 기아가 각각 0.26%, 0.62%씩 오르며 숭고르기에 들어갔다. 관세 리스크가 부각됐던 3일에는 LG전자가 전 거래일보다 7.13%, 기아는 5.78%씩 급락했다.

LG전자, 삼성전자는 멕시코에 사전과 TV 공장을 두고 있으며, 기아는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아는 한국산 10% 관세, 멕시코산 25%

관세 부과 시 영업이익 악화 폭이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5년 추정치의 약 16%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날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하단을 방어했다. 4일에는 3%대 강세를 보였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셈이지만, 취소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일부 기업들의 보편관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 이러한 업종에 속하는 건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기기 등이며, 관세 문제가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전까지 부진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세는 결국 수출과 관련된 이슈이므

로 한국 내수 관련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어려운 투자 환경을 피해갈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세전쟁 우려를 빚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조선, 건설, 엔터, 게임 업종 등이 언급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조선 업종은 트럼프가 애초에 필요로 한다고 내놓고 이야기를 한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없는 섹터라고 생각한다”며 “관세는 주로 제조업에 적용되는 만큼 서비스업인 엔터 산업도 예외될 수 있고,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며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급된 동맹국으로 한국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주요 조선 관련 업종을 담고 있는 ▲SOL 조선TOP3플러스 ▲KODE X K-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 ▲TIGER 조선TOP10 ▲HANARO Fn조선해

운 등은 모두 1%대 이하의 하락세를 보였다. 3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52%, 코스닥은 3.36% 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선방한 수준이다. 관세정책이 유예되며 시장이 반등한 4일에는 일제히 3~4%대 상승했다.

김 연구원도 “조선, 원전, 전력 등은 미국이 필요한 제품이지만 온전하게 자국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관세를 부과해도 얻을 게 없다. 즉, 관세 리스크가 높지 않기에 주가가 흔들리면 저가매수로 대응하며 버티면 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 또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흔들림 없는 곳으로 수주, 매출, 이익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고, 해외 성과에서 미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낮다”며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 내 정유 시설에서 원유 공급망을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오일·가스(Oil&Gas) 프로젝트가 다시 활기를 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딥시크 쇼크’에도 SOXL·엔비디아 줍줍

**해외주식 Click**  
낙폭 과도 분석... 단기 반등 기대  
매수세에도 관련 주식·ETF 부진  
관세 이슈에 변동성 커질 가능성



/유도이미지

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맞먹는 모델을 선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관련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여전히 매수하고 있다. 주가 하락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1월 28일~2월 3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를 4억4299만 달러어치 순매수, 가장 많이 담았다. 이어 엔비디아 주식을 4억1244만 달러어치 사들였으며,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 변동을 2배로 추종하는 그레닛세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NVDL)

도 3억5557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밖에도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엔비디아와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는 일드맥스 엔비디아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도 2964만 달러어치를 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이 SOXL과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은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단기 반등을 기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 주가는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하루 만에 17% 급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9% 넘게 하락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관련 주식과 ETF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좀처럼 하

락을 회복하지 못한 채 12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딥시크발 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 우려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향후 관세 이슈가 지속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딥시크의 등장이 엔비디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AI 시장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발표 이후 AI 모델 훈련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반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면서도 “그러나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하려면 여전히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2025년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증여, 전년비 7배 ↑”

맞춤형 세무 컨설팅·이벤트 진행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세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인 ‘해외주식 VOLUME-UP 이벤트’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 금액과 순매수 금액에 따라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며, 고객의 금융 절세 캠페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kova@

## 지난해 주식발행액 24.6兆... 전년비 10.9% ↓

발행회사 1274곳... 5.7% 줄어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발행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발행금액은 줄어들었으나 코스닥에선 큰 폭으로 늘었다.

4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자동발행금액은 24조64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9% 줄었다. 발행회

사도 1274개사로 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발행수량은 184억5700만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주식이 101억8000만여주로 작년 전체 발행 수량의 55.2%에 달했다. 이어비상장법인 주식 약 44억6000만주(24.2%), 유가증권 상장주식 약 36억8000만주(19.9%), 코넥스 상장주식 약 1억2000만주(0.7%) 등 순으로 많았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으나,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은 각각 전년 대비 20.7%, 25.7% 감소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약 11조1491억원, 코스닥 상장법인이 약 9조7575억원을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유가증권시장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18.0% 감소했고,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발행사유 별로는 ‘유상증자’가 65억 9000만주,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관희 기자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비상장사로 확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온라인 처리  
삼성증권은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인 온라인 주총장이 상장기업에서 비상장기업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온라인 주총장’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2020년 오픈 후 5년 만에 920개 상장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업계 최초로 ‘온라인주총장’ 서비스를 비상장사로 확대해,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가능했던 주주총

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주총장’ 신청 기업이 주총을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세부적인 실행과 운영에 대해 맞춤형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든 간편한 주주인증 절차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주총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주총장 계약기업들이 삼성증권과 진행한 증자, 불특정 등의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라며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가 삼성증권의 법인 영업 길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